

10월 25(월) / 요 10-12

▶ **내용요약** :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양의 우리 비유를 통해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절도와 강도를 경계하고,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함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셨다. 11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자 생명임을 증언하셨다. 한편 이 일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12장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께서서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다. 이후 예수님께서서는 인자가 들려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보여주셨다.

▶ **질문** : 아래 각 빈칸을 채우시오. (12장)  
“한 알의 (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 )를 맺느니라”

▶ **생각하기** :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구하자.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10월 28일(목) / 요 19-21

▶ **내용요약** :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과 희롱을 당하셨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로 인해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 돌아가셨다. 한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구하여 새로 판 무덤에 두었다. 20장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일찍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 문에서 옮겨진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 이후 예수님께서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후 21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질문하신 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명하셨다.

▶ **질문** : 예수님의 시체를 새 무덤에 둔 사람은? (19장)  
▶ **생각하기** :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눈으로 보고도 그분을 믿지 못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삶의 체험이 아닌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자.

10월 31일(일) / 행 7-9

▶ **내용요약** :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 담대히 설교함으로써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스테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로 치므로써 스테반을 처형했다. 그러나 스테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후 8장에서부터는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더욱 본격화되었다. 이에 성도들은

10월 26일(화) / 요 13-15

▶ **내용요약** :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서로를 겸손히 사랑하고 섬겨야 함을 교훈하셨다. 이후 예수님께서서는 괴로운 심정으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하시면서, 가롯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다. 그가 나간 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언하셨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한편 15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묘사하셨다.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함을 교훈하셨다.

▶ **질문** :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인가? (13장)  
▶ **생각하기** : 예수님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새사람이 된 존재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이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10월 29일(금) / 행 1-3

▶ **내용요약** :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사십 일 동안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고 명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다. 한편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에 힘썼으며, 제비를 뽑아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맛디아를 열두 사도의 수에 세웠다. 2장에서는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 임하셨다. 이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삼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초대 교도들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놀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였다.

▶ **질문**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날수는? (1장)  
▶ **생각하기** : 성령님이 임하신 후, 제자들은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우리는 복음전도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는 성서인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해를 피해 곳곳으로 흩어졌고,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의 말씀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파되었다. 이에 일곱 집사 중의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의 부흥을 위해 쓰임을 받았다. 한편 9장에서는 스테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사울은 사울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기도로 회복되었다. 이후 사울은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증언하게 되었다.

10월 27일(수) / 요 16-18

▶ **내용요약** :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장차 제자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임하시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17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구하셨다. 이후 18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가롯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 **질문** :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사람은? (18장)  
▶ **생각하기** : 예수님께서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신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자.

10월 30일(토) / 행 4-6

▶ **내용요약** :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 공회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도는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그들의 경고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두 사람은 풀려났고, 교회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한편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발을 팔아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 내놓았다. 이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속적인 마음으로 거짓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오히려 심판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셨다. 사도들 또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며 기뻐했다. 6장에서는 구제 및 기타 여러 일을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 명을 집사로 세웠다.

▶ **질문** :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발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 **생각하기** :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물건을 나누며 이웃을 돌보았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물론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현대교회는 그들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 **질문** :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서, 처형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은? (7장)  
▶ **생각하기** :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다. 보이는 건물이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온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기 때문이다.